

보도설명자료 (13. 5. 1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아시아경제 “SK에너지 점유율 30% 붕괴 의미는?

‘기간산업 휘청’”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 (13.5.15)

1. 보도내용 (13.5.15, 아시아경제)

- 석유전자상거래 정책이 가격인하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수입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

- 전자상거래 도입에 따라 가격인하 효과도 나타나고 있으며, 조기 안착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
 - '13.4월말 등록참가자수 1,578개로 '12.6월 452개 대비 3배 이상 증가
 - * ('12.6) 정유사 4, 수출입사 7, 대리점 61, 주유소 380
 - (*13.4) 정유사 4, 수출입사 15, 대리점 146, 주유소 1,410, 일반판매소 3
 - 전자상거래가격이 정유사 공급가대비 약 58원/ℓ 저렴하여 수입 인센티브 약 43원/ℓ* 이상으로 가격이 인하되었으며('12.7~'13.3, 경유)
 - * 할당관세 약 14~27원/ℓ, 수입부과금 16원/ℓ, B/D면제 10원/ℓ
 - 구매 주유소(7~12월), 대리점(10~12월)은 인센티브의 약 80%를 가격인하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
 - 저렴한 전자상거래가가 시장의 기준가격으로 인식되어 주유소와 정유사간 협상시 주유소의 협상력을 제고함으로써 가격을 인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남
 - 과거에는 월초(1~3주)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월말에 가격이 할인되었으나 최근에는 월말 할인가격이 앞당겨 적용되는 현상 나타남
- 산업부는 전자상거래 수입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는 국내 정유사들이 참여시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음
 - 국내 정유사들은 금년 하반기부터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계획이며,
 - 이에 따라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면제는 '13.5.15일부로 폐지되고 수입제품에 대한 할당관세는 '13.6.30일부로 종료될 예정임

※ 자료문의 : 석유산업과 강경성 과장, 김형석 사무관(02-2110-5457)